

지상전람회 “살아있는 언어”

살아있는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더욱 단련되는 민중들의 참사를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진가들의 노력은 짐작스러기까지 한다.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회 진분과 '반영'은 청년학생들의 투쟁과 끌려가는 모습을 담은 '서대'

기린 개강맞이 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 이에 본보는 오는 27일경 우리 학교에서 전시될 작품중 일부를 소개함으로써 학우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註)

학원전달속에 자행된 반민주적 폭력의 결과

민중주의자들의 배후로

이제부터 달라야...



위기정권이 참출한 또 한번의 지루한 싸움 - 서강대에서



거짓없는
눈빛에
비친 현실.
나는
커서...

신입생을 위한 문화행사 안내

부활의 노래 상영

현대사에 빛으로 얼룩져 남아있는 '광주' 그 당시와 그때를 살았던 인물들의 열정과 아픔을 담은 '새빛영화사'의 '부활의 노래'가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개봉되었다. 고 박관현, 이윤상 일사의 행적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영화는 수차례 검열과,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2년의 노력 끝에 완성, 상영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제작비의 국민주모금과 당시 관객의 제작참여, 자료 제공 등으로 대중성을 확보하여, 한층 관심을 불러 모았다.

한그림과 생동공체 만화전시회

문리대 학생회는 '한그림'의 만화와 생동공체 미술공예 (이하 생동공)의 만화를 이번 주 동안 문리대 앞에 전시한다. 특히 한그림의 작품은 작년 11월 임수경통일문학상을 수상한 한빛문화회의 집단창작시 '새길에 서서'를 만화로 표현해 낸 것으로 의미가 깊다.

두스름 강습

사범대 풍물대 '두스름'은 오늘부터 13일까지 오후 5시에 사대앞 선교에서 사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고, 북 강습을 실시한다. 신청자는 풍물강습후에는 풍성한 뒷풀이도 마련될 예정이다.

신입생 환영 문화학교 한의대 '우울패' 소리결'주최

한의대 풍물대 '어울패'와 노래패 '소리결'은 한의대 신입생을 10주로 나누어 오늘부터 14일까지 '신입생 환영 문화학교'를 연다. 1~5주는 11~12일 어울패의 풍물강습, 13~14일 소리결의 노래강습을 받고, 6~10주는 11~12일 노래강습, 13~14일 풍물강습을 받는다. 마지막날 14일 밤에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짙푸른 뒷풀이를 가질 예정이다.

바람개비 공연

수원캠퍼스 동아리 바람개비가 신입생을 위한 환영 콘서트를 3호관 시청각실에서 오는 14일 1시30분과 4시에 가진다. 통기타 반주에 4중창을 위주로 하는 이번 공연은 창작곡인 '바람개비'를 시작으로 대학가에 널리 애창되는 노래를 선곡해가 어우러져 신입생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빛문화회 새념맞이 문예교실 개최

문화동아리 '한빛문화회'는 '새념맞이 문예교실'을 오는 22일 오후4시부터 문리대 201강의실에서 전2부로 나누어 실시한다. 1부는 정도상씨가 '초보자를 위한 알기 쉬운 문학이야기'라

는 주제로 강연하고, 2부는 한빛문화회 시문과 시낭송과 연구분과의 연구논문 발표가 진행된다. 한빛문화회는 시·소설의 창작부와 연구부등 세분화된 조직체계를 갖춘 역량이 있는 문학동아리이다.

경희극장 '괴사'공연

민족극을 지향하는 연극동아리 경희극장은 신입생 환영공연 '괴사'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크라운관에서 선보인다. '괴사'는 85년 발표된 고려대 창작극이다. 주인공 민수가 불심검문에 걸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똑같이 민수의 삶을 왜곡하는 현상을 그림으로써 진정한 학생운동의 모습을 재조명해 본다. 극의 흥을 돋구기 위해 탈출 등이 삽입된 이 연극은 14~15일 오후5시와 6시에, 16일 오후2시와 5시에 각각 공연된다.

그림자 놀이 영화상영

영화연구회 '그림자놀이'는 오는 12일 오후5시, 학생회관 6층 영화연구회에서 신입생을 위한 영화 '물결에서 일들'까지 우리반을 찾습니다'를 상영한다. 그림자놀이는 영화제작과·영화제, 영화화상 등을 통해 영화로써 우리 삶의 모습을 올바르게 담아내고자 85년 5월 창립된 동아리이다.

용기 복돋는 노조활동 선봉대

본교 노동조합 풍물패를 찾아서



문화와 함께
문화와 함께
문화와 함께

행사 및 전노협,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대노협) 등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노조 활동에 힘을 주는 선봉대로 나서고 있다. 또한, 노조의 조직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요즘, 전통 풍물 놀이와 같은 문화 행사를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단결의식을 고취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조직력 약화보완하는 단결의구심 회원의 관리·환경적 편중 개선해야

대운동장 스탠드 아래 어렵게 마련한 모임방의 공간이 너무 좁아 연습이 어렵게 보였다. 또, 풍물패원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서로 달라 모임 기회가 적은 것이 흠이지만 오늘처럼 점심시간이나 퇴근후 짬을 내



◇지난 노동절 동아리 연합 풍물패와 흥겨운 판굿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 풍물패

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신입회원에 대해서는 항상 문이 개방되어 있어 풍물을 관심있게 배우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며 현재의 관리적·환경적 편중되어 있는 것을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본 풍물패는 침체기에 빠진 노조활동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며 힘차게 이야기를 맺는다. (이효숙 記者)

대학주보가 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지녔다고 자부하는 지성인 이들의 모임인 대학의 첫출발을 한 신입생들을 위하여 본사가 선정한 몇권의 도서를 추천합니다. 철학, 역사, 종교, 소설, 시 등 보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값진 대학생활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주시로 사회를 고민해 나갈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각 분야의 책을 소개합니다. (편집자註)

- 철학의 기초이론
철학을 쉽게 학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일상적인 철학적 문제에 대해 가장 일상적인 해답을 내리고 있는 철학의 기초이론이다. 특히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으로 나누어지는 철학의 두가지 큰 줄기를 한권의 책으로 묶음으로써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백산사당刊 2천5백원)
- 소유냐 존재냐
에릭프롬이 수많은 저작에서 추구해 온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성의 문제'를 철학·정신분석·종교·역사 등 여러 관점으로부터 파헤쳐가며 고찰한 사회계몽서적으로 프롬사상의 총결산으로 옮긴다는 박병진씨. (범우사刊 3천8백원)
- 역사란 무엇인가
E.히카리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규정한다. 보논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카이는 이 책을 통해 역사적 사실, 역사에서의 개인과 사회, 역사의 과학성, 역사에서의 인과관계등 그 근 본문제를 예를 통해 명료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범우사刊 3천원)
- 세계사편력
인도의 민족해방투쟁의 지도자인 네루의 육중서간으로 서양중심의 세계주의 역사관을 단호히 부정하고 각각의 민족과 일하는 민족이 역사의 주체임을 확인하며 역사를 민족의 실천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전환기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 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서출판 석탑刊 3천4백원)
- 해방전후사의 인식
해방과 분단의 아픔을 가져다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해방전후사를 날카롭게 분석한 책으로 해방전후사의 우리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주고 우리역사를 보는 시각을 조절해줄 만한 역작이다. (한길사刊)
- 황색인
이상문이 지은 이 책은 기존의 베트 남전을 소재로 한 소설과 다른점은 전쟁을 통해 교훈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전쟁현장의 비참함을 강조하는 등의 소설적 효과를 노린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일어날 사실이라는 점을 가족사와 사회맥락에서 다사구성한 날카로운 통찰이 돋보이는 책이다. (한국문화사刊 3천5백원)
-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자의 죽음
1943년 나찌즘에 대항하여 저항운동 을 펼친 학생들의 생생한 실화

- 한스·홀과 조피·홀 남매의 삶을 그렸다. (도서출판 청사刊 2천원)
- 성과속
루마니아가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 밀치아 엘리아데의 심오하고도 독창적인 사상을 가장 간명하게 요약해 놓은 이 책은 현대 종교학의 방향을 얘기하고자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이론적 텍스트일 뿐 아니라 삶과 우주의 본질을 진지하게 따져 묻는 사람에게는 깊은 감명을 준다. 옮긴이는 이동하씨. (학민사刊 2천5백원)
- 고요한 아침의 나라
개화기 당시 한미수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지은이 pacival Lowell이 고종의 초창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4개월간의 체류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전36장에 걸쳐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 생활풍속, 정치, 법률 등에 대한

- 상한 이은성씨다. (창작과 비평사刊 3천8백원)
- 들어라 양키들이아
C.라이트 밀스가 지은 이 책은 60 8월 쿠바에서 만난 혁명전사, 지식인, 관련기자, 교수들과 가진 토론티 인터뷰의 분위기와 내용들을 반영한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전세계 굶주린 나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불굴의 미국의 자기비판자인 이 책은 쿠바 혁명가들의 소리를 들 수 있는대로 명료하고 강력하게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아침刊 2천5백원)
- 소설 동이의보감
침의 자식이라는 신분의 절곡과 사회제도의 모순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깨쳐나가는 주인공의 용기, 생애에 대한 경의심과 병들어 고통받는 민초에 대한 무한한 헌신과 민족애를 가진 살신성인의 스승 유이태동이 등장하는 이 소설은 '동이의보감'의 저자 허균의 일대기로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은이는 '두서양이란 작품으로 제 25회 '백상예술대상'에서 특별상을 수

생명의 본질과 마음의 실체를 터득하는 유일한 것은 무수히 정신과 지극한 수행에 의한 공도요이다.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 진실한 양심을 펴주는 아치고 착한 이웃들에게 권하는 현대물리학과 불교가 만나는 책이다. (과학과사상刊 4천원)